

“러시아서 연극의 진지함 배웠죠”

연출가 김민호 동시대 교수

최근 러시아 람빠극장 초청 공연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가 공동예술극장에서 열렸다. 극단 ‘연우랑’이 기획한 무대였다. 제작 기간의 촉박함 등으로 완성도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민간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교류를 추진한 점은 의미가 있었다. 특히 미술 등 타 장르에 비해 해외 교류가 거의 없는 연극 분야에서 물꼬를 댄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이번 공연의 성사 뒤에는 김민호(46) 동시대 방송연예학과 교수가 있다. 나주 출신인 김 교수는 러시아 셰프킨 연극학교에서 공부한 게 인연이 돼 이번 공연을 진행했다. 귀국 후 출근 서울 대학로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3월 동시대에 부임한 김 교수는 지역 연극인들과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등학교 연극반에서 처음 연극을 시작한 그는 1988년 극단 ‘민중’에 입단하며 본격적인 연극배우의 길을 걸었다. 우연찮게 연극영화의 해 사무국 등에서 기획, 행정 업무를 보며 인정을 받았고 계속 무대가 아닌, 기획 분야로 일감이 주어지지 ‘배우의 꿈’을 위해 1993년 과감히 러시아로 유학을 결정했다. 1998년 귀국 후 직접 희곡을 쓰고 연출한 ‘미친 햄릿’을 무대에 올리며 활동하던 그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왔다. 2002년까지 대학원 과정을 밟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극단 생활을 했다.

“러시아에서 생활하면서 연극에 대한 진지함, 창작에 대한 자부심을 배운 게 가장 의미있었다. 무엇보다 내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꿔줬다. 어찌보면 난 연극한다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았던 불량학생이었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던 셈이다. 나의 행복과 가치마저도 사회로부터 차단 당하는 게 한국 사회다. 러시아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사회의 평가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게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이번에 시도한 러시아 람빠극장과 공연은 그에게도 아쉬움이 많았다.

“연출자로 참여했기에 작품의 완성도에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 어려움을 감수하고 공연을 진행했던 건 한국배우들이 외국과 협업해 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배우는 가장 생각이 열려 있고, 빠른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지역 배우들은 수동적이고 오히려 가장 느린 것 같더라. 배우는 꿈도 커야 하고, 대범하고 영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극을 주고 싶었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협업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봤다.”



최근 러시아 극단과 교류 공연을 진행한 김민호 동시대 교수는 지역 배우들이 해외 극단들과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자극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시대 제공>

러시아 람빠극장 광주공연 성사 교류 물꼬 평화연극제·전국연극제 출품작 준비 분주 인생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체홉’ 애착

서울에서 극단 ‘청년’을 창단하고 ‘열린 소극장’을 운영했던 김 교수는 몇 년 전 광주배우협회와 체홉의 ‘갈매기’를 공연하며 광주 배우들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배우들이 열린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던 모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김 교수의 올해 일정은 바빠진다. 우선 5월 8일부터 열리는 광주평화연극제 경연 참가작인 극단 ‘시민’의 ‘가슴을 가린 꽃’을 연출한다. 또 오는 6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출품한다. 직접 희곡을 쓰고 연출을 맡은 극단 시민의 ‘나이트’가 참가적이다. 그밖에 고난영·윤미란 2인극 ‘잘자요 엄마’ 연출을 맡고 ‘여우회’ 공연도 함께 하기로 했다. 연말에는 극단 시민과 동시대와 함께 진행하는 ‘시민애프터스텝’도 열 계획이다.

김 교수는 고전에 애착이 많다. 순천시립극단 상임연출가 시절에도 ‘느릅나무 밑의 욕망’, ‘인형의 집’ 등을 공연했었다.

특히 그는 체홉의 팬이다. “대학로는 상업적으로 이미 물들어 버렸다. 하지만 광주의 연극인들을 만날 때면 작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거 해 보고 싶다 제안을 많이 하더라. 특히 고전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체홉의 작품을 보면 인생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보느냐 감탄하게 된다. 인간의 삶을 꼭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는 것 같다. 보통 작가는 주인공에 대해 동정하게 되는데 끝까지 제 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냉정함이 돋보인다. 그의 작품을 읽으면 ‘아 이게 살아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김 교수는 기회가 되면 러시아에서 공연했던 ‘마지막 황제’를 무대에 올리고 싶다고 했다. 고종 황제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두렵기는 하지만 이 작품으로 다시 무대 위 ‘배우’로 서고 싶다는 꿈도 내비쳤다. /김민호기자 mekim@

광주일보 문화매거진 **에냥** 5월호

싱글맘·한부모...新 가족풍속도



싱글맘, 한부모 가족 등 시대가 빚어낸 새로운 가족형태들이 생겨나고 있다. 변함 없는 가족의 바탕은 사랑이다. 그 중심점에 다양한 모습으로 응결된 가족의 모습은 아름답고 도담다.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에냥’ 5월호(235호)에서는 ‘가족이 희망’이라는 화두로 우리시대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혈연가족의 정의를 무색케 할 정도로 다양하게 진화한 가족형태와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가족 신풍속도를 들여다봤다. 중국 현지에서 ‘부모 있는 아이’를 입양해 판사로 키우고 결혼까지 시킨 광주 부모의 이야기도 곁들였다.

광주민주화운동 기획으로는 ‘광주의 목에 걸린 가시’가 되고 있는 ‘입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문제를 다뤘다. 국가(國歌)로서 지위를 누리는 세계 각국 혁명가요와 민중가요를 돌아보면서 입을 위한 행진곡을 배안시하는 정부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했다. 또 입을 위한 행진곡의 탄생과 의미, 기념곡 지정의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조

명했다. ‘예향초대석’의 손님은 베스트셀러 ‘야생초 편지’의 저자이자 생태운동가로 살고 있는 황대권 선생. 영광에서 농부로 살면서 생명평화 운동을 펼치는 그의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 연재물 ‘사람이 브랜드다’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작품으로 아우라를 발산한 고암 이응노 화백을 찾았다. 문화와 문화화제 코너에서는 각각 광주에서 제2의 영화인생을 시작하는 이장호 감독과 치열한 예술로 살았던 조태일 시인의 자취를 찾았다.

해외 문화예술을 생생하게 조명할 기획물도 풍성하다.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꼽히는 중국 798예술지구, 남반구의 파리로 불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스페인을 대표하는 마드리드 등 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고장을 찾았다.

‘신남도문화여지도’에서는 ‘나비의 고장’, ‘함평천지’로 우뚝 선 함평의 유서깊은 역사, 문화, 음식 등을 다채롭게 조명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리움이 강물처럼 흐른다

배우 명계남 손글씨전
노 전 대통령·세월호 추모
5월 4일까지 메이홀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명계남의 손글씨 전시회가 오는 5월4일까지 메이홀에서 ‘그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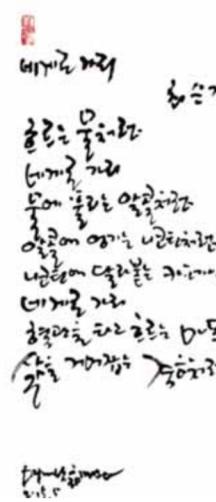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등 눈물물 먹 삼아 쓴 노 전 대통령의 2002년 대선후보 수락 연설문, 1988년 5공비리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반박 질문,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쓴 6월 항쟁의 기록을 명계남의 글씨로 만날 수 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 시인 최승자의 ‘네게로’, 김민기의 ‘상록수’, 박관현 열사의 글도 함께 전시된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글씨들도 함께 선보인다.

“그럼에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딸이 바라던 세상, 그 길을 간다”라고 말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유미 학생의 아버지 유해중씨의 글 등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그리움체에 담겼다.

명계남은 “전문가도 아니고 부끄럽다”며 “재주를 살피지 마시고 제 맘 그리고 많은 이들의 맘을 함께 나누시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서울(5월6~9일), 성남(5월11~17일), 김해 봉하마을(5월22~25일)에서 계속된다. 문의 010-6678-669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흐르는 물처럼 / 네게로 가리 / 물에 풀리는 알뜰처럼 / 알뜰에 영기는 니코틴처럼 / 니코틴에 달라 붙는 카페인처럼 / 네게로 가리 / 열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 균처럼 / 삶을 거머잡는 죽음처럼.”(최승자 ‘네게로’)

배우 명계남은 여섯해 전부터 붓을 잡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보낸 뒤부터다. 달필가였던 그는 힘들었던 시간을 붓과 먹에 담아 보냈다. 노 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에 대한 바람과 그의 어록들을 옮기기 시작했고, 가슴 아픈 이들의 사연을 쓰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09년 9월 노 전 대통령 생가복원식에서 추모글씨들을 선보이는 ‘우리가 강물이다’전을 열었고, 지난 2012년 3주기를 맞아 봉하에서 추모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때 만든 서체가 ‘그리움체’다. 흐르는 강물처럼 굴곡없이 굽이진 서체에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꿨던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다.

선재광 원장의 암, 고혈압, 당뇨 잡는

‘체온 1도’에 주목하라!

MBN <엄지의 제왕>
‘체온 1도의 기적’ 편 방영 화제작!

21세기 가정집에 꼭 상비해야할 책!
현대판 동의보감 <천기누설> 10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신재광 | 시가 14,000원

천기누설 10권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광·김달래·이광연 | 시가 17,000원

인태리서점(교보문고, 에스24, 인터넷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70-7514-2659